

청.장년 성경공부

창세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인도자 지침서>

글쓴이 : 브라이언 하버 (Brian Harbour)
메리다 스톤 (Meredith Stone)
단 레이니 (Don Raney)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창세기: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BaptistWay 학습공과)

판권소유 © : 2010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성경, 1961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ManagementTeam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Miller

Publisher, BAPTISTWAY PRESS®: Ross West

한국어 집필위원

창세기 (1과 ~ 3과) 번역

유윤수 (뉴송침례교회)

창세기 (4과 ~ 8과) 번역

최승오 (달라스새누리교회)

창세기 (1과 ~ 8과) 편집

최승오 (달라스새누리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0년 8월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학습공과 저자들

브라이언 하버 (Brian Harbour): 1단원을 1-3과를 썼다. 42년 동안 목사로서 교회를 섬긴 후 하버 박사는 은퇴 한 후 글을 쓰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목사들을 상담해주고 목회를 클리닉 해주는 비영리 단체인 SeminaryPLUS 의 회장이다. 그는 또한 Dallas Baptist University의 겸임 교수이 베일러 대학교의 종교부 초청 교수이다.

메리다 스톤 (Meredith Stone): 4-6과를 썼다. 스톤 박사는 텍사스 Abilene에 있는 Crosspoint 침례교회의 교육 목사이다. 그녀는 또한 Logsdon Seminary 의 코디네이터이며 구약과 히브리어를 Hardin-Simmons에서 가르쳐 왔다. 그녀는 Hardin-Simmons 대학교 (B.A., M.A)를 졸업 했으며 Brite 신학교에서 성경해석학 Ph.D 학위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단 레이니 (Don Raney): 2단원의 7-8과를 썼다. 레이니 박사는 텍사스 Petersburg 제일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Alabama 대학교를 졸업했다 (B.A.) 그는 Southwestern Baptist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단원 1: 태초의 시작

창세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믿음에 대한 모든 위대한 신학적 원리들은 창세기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는 창세기에 신학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또한 창세기는 가정; 일; 언어와 인종의 다양성; 인간의 죄;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 오늘날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의 근원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게다가 창세기는 나머지 성경 모두 보다 더 많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고, 창세기 저자는 오늘날의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중요하다.

창세기 1-1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망쳐놓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고 세상을 올바른 길로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대사로 택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전반부(창세기 1-11장)에서는 아담과 이브,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를; 나머지(창.12-50장) 부분에서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과 같이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신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야기는 자세하다기 보다는 선택적인 면이 있고,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해석적이기도 하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계획을 풀어 놓은 이야기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한다.

또한 창세기의 이야기는 과학 논문과 같은 의도가 없다. 성경 기자는 당시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사용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그 이해를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성경이 기록 될 당시의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이해력보다 발전되거나 변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이야기의 진리는 동일한 것이다.

1단원: 태초의 시작

1과	아담과 이브: “나”에 대한 모든 것	창세기 3장
2과	가인과 아벨 : 누가 상관해?	창세기 4:1-16
3과	노아: 은혜를 찾아서	창세기 6:5-9; 7:1-6; 8:13-2

[제 1 과]	아담과 이브: “나” 에 대한 모든 것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창세기 3장</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창 2:4-3:24</p>	<p>학습주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때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한다.</p> <p>탐구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나의 선택을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 연관지어본다.</p>

들어가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대신에 자신들의 욕망을 좇아감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인간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개인적으로 파멸되고 이방인처럼 되는 길로 접어들게 하였다.

당신은 유리한 위치에서 참담한 위치로 갑자기 옮겨지는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세상의 정상에 있다가 한 순간에 저 아래 바닥에 떨어져본 적이 있는가?

그런 일이 아담과 이브에게 벌어졌다. 창세기 2장은 아담과 이브가 매우 이상적인 상황에 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신성한 교제 안에 머무는 은혜를 입었다. 내면에 교제를 갈망하는 존재로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갈망을 만족시켰다. 육체의 영양에 대한 기본적인 필요를 갖고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동산의 풍성한 과실에서 배고픔을 채웠다. 그들은 이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창세기 3장은 아담과 이브가 절대적인 혼돈 가운데 있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아담과 이브는 나무 뒤에 움츠리고 숨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라졌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던 교제는 이제 억지로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다.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성경의 저자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을 묘사함으로써 그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교재에서 이 사건을 인간성의 상실이라고 언급하려고 한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는 인간의 역사에 죄를 가져다 주었다.

행위 (3:1-6)

창세기 3장을 열면 사탄의 유혹이 “뱀”의 형태를 입고 나타난다(창 3:1). 뱀은 실재하는 동물이다. 이브가 첫 유혹의 대상이었는데, 그녀는 동물이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알지 못했던 이성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물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뱀은 사탄으로 드러나게 되고(계시록 12:9)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는데 뱀을 이용하였다.

비록 뱀에 의해 나타난 유혹의 배경에 사탄이 있음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는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담과 이브였다. 유혹은 단순히 죄를 짓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아담과 이브의 신중한 결정이 죄를 현실화 시킨 것이었다.

죄가 현실화되어 가는 연속적인 단계를 주목하라. 불순종에 이르게 하는 첫번째 단계는 호기심이었다. 사탄은 이브에게 뱀을 통해서 말했는데(창 3:1), 뱀은 보통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던 동물이었을 것이다. 타락 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화의 내용은 어떤 한 인격체가 말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탄은 이브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러한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을 이용했다.

그 다음에 사탄은 이브의 호기심을 의심으로 몰고 갔다. 사탄의 질문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1). 그렇지만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였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도했다(3:1). 그리고 나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4)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의심하도록 유도했다. 그 다음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5)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설득했다. 호기심과 의심은 마침내 불순종의 행위를 촉발시켰다. 이브는 과실을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다(3:6).

책임 (3:7-13)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는 즉각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죄는 서로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변형시켰다. 창세기 2:25절은 그들이 발가벗고 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를 향해 완전히 열려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아담과 이브는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즉시 벌거벗은 몸을 가려야 함을 느끼게 되었다(3:7).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꾸었다는 사실이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아담과 이브는, 이전에는 하나님과 따스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관계를 즐겼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은 동산의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였다(3:8).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저야 할 책임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신과 교제하기 위해 창조한 피조물로부터의 응답을 원하셨다. 아담은 서로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였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고백하였다. 하나님은 비난하시기 보다는 질문으로 대응하였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었는지 질문하였다.

이 때 서로 비방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대신에 이브를 비난했다. 그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에게 손가락질하였다(3:12). 이브도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대신에 그녀는 뱀을 비난하였다. 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뱀이 나를 꾀므로” 라고 말했다(3:13). 그들은 마치 “싸움은 애가 나를 때려서 시작된 거예요” 라고 부모에게 설명하면서 학교에서 있었던 싸움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어린애들과 같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거부했다.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3:14)라고 하시며 그들의 변명을 명확한 책임 추궁으로 상대하였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둘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둘 모두에게 말씀하셨다.

결론 (3:14-24)

아담과 이브가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개인적인 결과들을 살펴보자. 죄는 처음으로 인간에게 죄의식을 가져왔다(3:7).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들의 변명 뒤로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각이 죄의식을 촉발시켰다. 그러한 죄의식은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이상 반가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피해 숨게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 일상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서로의 관계를 변형시켰다는 점이었다. 창세기 3:14절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묘사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하셨던 종류의 삶으로 처방해주시지 않았다. 대신에 하나님은 인간이 죄의 결과로 겪어야 할 일그러진 삶을 말씀해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뱀의 형체를 빌린 사탄에게 말씀하셨다(3:14-16). 사탄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망쳐놓은 인간에게 견딜만한 승리를 얻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궁극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의 발꿈치에 의해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3:15).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protoevangelium(원시복음)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인간의 엄청난 실패 가운데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다. 뱀은 사탄을 나타낸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메시아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메시아는 사탄을 짓밟고 사탄이 가져온 죽음을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브에게 말씀하셨다(3:16). 하나님은 그녀가 겪게 될 출산의 고통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영원한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남자와 여자 둘 다에게 말했을 때(창 1:26-27), 그리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의 이브를 말할 때(2:18) 분명히 하셨다. “돕는”이라는 말은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도 세 곳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출애굽기 18:4; 신명기 33:29; 그리고 호세아 13:9절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을 위한 “돕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처럼 여자는 남자를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종속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 3:16절에서 여자에게 주어진 출산의 고통과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은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창.3:17-19). 하나님은 그가 하는 노력에 실망과 수고가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먼저 하셨던 경고-금지된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선언하셨다(2:17).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은 그들이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마지막 판단을 하실 때, 자비를 베푸셨다(3:20-24).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서 쫓으셔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일그러진 조건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불순종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시려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서로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 놓았다. 그렇지만 그들의 불순종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망치지 못했다. 첫 아담이 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아담이 고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2).

적용 및 실천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몇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1과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은 유혹은 단지 죄에 이르게 하는 기회일 뿐이지 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했다. 둘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마치 아담과 이브가 서 있던 자리에 우리도 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길을 잃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임수를 밝혀주고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내린 결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 자신이 아니며 다른 누구에게도 비난의 손가락질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입을 옷을 주셨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질문

1. 죄와 유혹 사이에서 본능을 혼란케 하는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2. 왜 사탄은 뱀의 형체를 입고 이브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는가?
3.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당신에게 사용하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4. 오늘날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누구를 비난하는가?
5.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참고]

사탄

성경에는 사탄을 확인해주는 몇 가지 이름이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신” (고후 4:4), “광명의 천사” (고후 11:14), 그리고 우리의 “대적” (벧전 5:8)이라고 불린다. 마태복음에서는 사탄을 “시험하는 자” (마 4:3)와 “마귀” (마 4:1)라고 불린다.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은 사탄이다(대상 21:1; 욥 1:6; 요 13:27; 행 5:3).

성경의 저자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삼킬” 려고 하는 것, 혹은 우리는 파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벧전 5:8). 구약성경에서 사탄은, 역대상 21: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총동원하고, 스가랴 3:1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욥기 1:10-11절에서 욥을 고소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요한복음 13:2절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고, 사도행전 5:3절에서는 아나니아가 교회 앞에서 거짓말하도록 그 마음을 움직였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긋나도록 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생긴 질문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 점원이 당신에게 거스름돈 3달러 20센트를 줘야 한다. 점원은 당신에게 거스름돈을 건네준다. 당신은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고 받는다. 당신은 차에 타고 나서 잔돈을 지갑에 넣으려고 한다. 그런데 당신은 점원이 1달러 지폐 세 장 대신에 20달러 지폐 1장과 1달러 지폐 2장을 주었음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하겠는가? 돈을 그냥 가지겠는가 아니면 돌려주겠는가?

[제 2 과]	가인과 아벨: 무슨 상관이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창세기 4:1-1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창세기 4장</p>	<p>학습주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돌봐야 한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p> <p>학습목표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보다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방법들을 확인하도록 한다.</p>

들어가기

하나님께 실망하고 동생에 대한 원한 때문에 화가 난 가인은 동생을 죽였고,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가족 안에는 장애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세상에 우리 가족생활에서처럼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는 곳은 없다.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하얀 울타리가 있는 집(행복한 가정)에 대한 신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완벽한 결혼을 하여 완벽한 자녀들을 낳고 그리하여 완벽한 충만함을 가져다 줄 완벽한 결혼 상대자를 찾고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멀리 찾아보거나 혹은 오랫동안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장애 가정이라고 부른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정사역을 해오면서, 모든 가정은 어느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시작으로 돌아가 실제로 존재했던 첫 번째 가정을 연구해볼 때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가인과 아벨로 구성된 첫 번째 가정은 완벽한 조화로우음을 누리지 못했다. 대신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장애 가정들에 의해 재현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가정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 번째 가정 (4:1-2)

성경 저자는 첫 번째 가정에 대한 그림을 간략하게 묘사하였다.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지속되는 관계, 그리고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이어지는 그들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 조건들을 어떻게 다루어가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냈을까? 어떤 형태의 집에서 살았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성경 저자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생략하고 단순히 이야기가 펼쳐지는 가운데의 중심 사건 - 두 형제의 출생과 그들 사이의 당연한 갈등 - 만 다루었다.

가정 생활의 시작에서부터 결혼은 나중에 바울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고전 7:3)고 말한 것처럼 성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 -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인간들 - 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28)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될 방법으로 성적 교제를 공급하셨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브는 임신을 하여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이브의 반응은 말장난처럼 보여진다. 원래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이브를 창조하였다. 이제 그녀는 은혜를 갚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게 되었다. 이 첫 번째 출생에 이어서 아담과 이브는 아벨을 두 번째로 낳게 되었다.

본문에서는 두 아들의 출생에 대한 시간표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그들 사이에 나이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대신에 본문은 그들이 관심과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벨은 가축을 길렀다. 그는 동물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았다. 반대로 가인은 땅에서 일했다. 식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곡물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땅을 일구었다. 뒤를 잇는 모든 가정처럼 이 첫 번째 가정은 머지않아 갈등으로 표출될 차이점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 살인 (4:3-8)

다시 한 번 본문은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으로 연결되는 갈등에 대한 배경을 좀처럼 주지 않고 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이 시점에 성인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들의 총독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예배의 특별한 행위로 성장하였다. 무슨 동기로 이러한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왔는지는 본문에서 분명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의 행위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주시지 않은 것 같다. 각자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삶의 내용에서 주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왔다. 땅에서 일했던 가인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키운 것을 제물로 가져왔다. 가축을 돌보던 아벨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돌보던 동물을 제물로 가져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

비밀스러움이 이야기를 덮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보다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몇몇 주석가들은 이 비밀에 대한 답을 아벨의 희생제물과 관련하여 묘사된 구절에서 찾고 있다. 성경은 아벨이 자기 가축에서 얻은 “첫 새끼”의 그 기름을 가져왔다고 말한다(창 4:4). 반면에 가인은 단순히 “땅의 소산”을 가져왔다(4:3). 이렇게 가인은 그 당시 그냥 얻을 수 있었던 대로 단순히 드렸던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것보다 아벨의 제물을 기뻐하셨다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 비밀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11:4절에서 찾는데,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분명하게 하나님은 가인을 거절하셨는데, 이유는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의 마음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옳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아벨만이 “믿음으로” 자기의 제물을 드렸다. 유다서 11절은 “가인의 길”이 자기 의지와 불신이었다고 밝힘으로써 이 결론은 확증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벨에게는 좋아한다고 그리고 가인에게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일한 비밀스러움이다.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훗날의 설명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38절에서 하나님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 불을 하늘로부터 내림으로써 엘리야의 제물을 좋아하셨음을 나타내셨다. 역대상 21:26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다윗의 제물을 좋아하셨음을 나타내셨다. 아마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에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좋아하셨음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풀리지 않은 질문들을 뒤로 하고, 창세기의 본문은 대신에 중심 사건 - 아벨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갈등 -에 초점을 맞춘다.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자기의 것보다 좋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분노로 반응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좋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가 드린 태도를 좋아하지 않은 것이었다. 가인은 자기의 제물을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려보려는 태도로 드렸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동기로 드리는 제물에 관심이 없으셨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접근하는 태도의 변화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알려주셨다.

그러나 가인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였다. 우리도 자주 그러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대신에, 가인은 문제를 자기 동생에게 부여했다. 아마도 가인은 내 잘못이 아니야 하면서 자신에게 속삭였을 것이다. 아벨의 잘못이야.(가인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갈등 관리에 대한 전략을 배웠다. 창세기 3장에 대한 1과를 보라.) 아벨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본 이후로, 가인은 자기가 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아벨의 목숨을 취하는 방법을 택했다.

심판과 은혜 (4:9-16)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심판과 은혜를 보여주었다. 심판이 먼저였다(4:9-14).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마주했던 부모와는 다르게, 가인은 책임을 전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신에 그는 자기 동생의 안위와 상관이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무관심으로 응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에게 자기가 정말로 동생의 보호자이고, 자기 동생에게 잘못 행한 복수는 이 거룩한 책임을 거역한 것이었음을 기억나게 하였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두 배의 저주를 내렸다(창 4:11-12). 첫째로, 그는 자기에게 황무지로 남겨질 땅에서 열매를 얻기 위해 노력할 때, 수고와 투쟁의 삶을 살아야 했다. 아담에게 땅은 노동의 대가로 겨우 열매를 공급하였다. 따라서 가인은 땅을 경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에 그는 방랑자의 삶을 살도록 저주를 받았다. 결코 한 곳에서 정착할 수 없었다. 자기 가정이라는 위로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자기만의 가정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결코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떠돌아다니는 삶이라는 저주를 받았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로부터 강제로 분리되는 저주로 받아들였다(4:13-14).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려졌다고 불평하였다. 또한 임시 휴식처에서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닐 때, 가인은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이 두려웠다.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으로 가인의 상상을 바로 잡았다. 비록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4:15). 본문은 이 “표”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있지 않아서 추측이 퍼져 나갔다. 어떤 이는 가인이 중풍환자였다고 한다. 다른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마에 아마도 여호와라는 이름의 첫 글자를 표시했을 것이라고도 한다. 다른 이들은 나중에 무지개가 표식으로 주어졌던 것처럼, 그 표는 확신을 주기 위해 가인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상징이다. 자비로움으로 하나님은 가인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주지 않으셨다. 은혜로 하나님은 가인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주셨다.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여전히 자기 행동의 결과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가인이 지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가인을 “놋의 땅”에서 방황하는 삶에 머무르게 하였다(4:16). “놋”이라는 말은 단순히 떠돌아 다닌다는 뜻이고, 아마도 가인의 삶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만큼이나 어떤 장소를 지정하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말은 가인이 자신이 속했었던 첫 번째 가정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다.

적용 및 실천

첫 번째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기억나게 한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말해 준다고 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길 요구하신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가정에 대해서도 말해 주고 있다. 가정 안에서의 친밀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분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피할 수 없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돌보아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신명기

6:5; 레위기 19:18; 마태복음 22:37-40절을 보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 가인은 어쨌든 자기 동생을 죽일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 삶에서 아무런 결과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느꼈다. 그는 인간의 역사에 얽혀지는 결과의 법칙을 발견했다. 죄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연속된 결과를 가져 온다.

질문

1.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2. 이 본문은 당신의 가정에 어떤 형태로 적용되는가?
3.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는 가인의 말대꾸에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4.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보다 못한 것으로 드렸던 때를 생각할 수 있는가?
5. 당신 자신에게 적용시키기 가장 어려운 본문은 무엇인가?

[참고]

희생

희생은 구약의 종교적 표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가서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식을 규정하는 조항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설명을 주셨을 때, 또한 희생 제물에 대한 설명도 함께 주셨다.

구약에서의 규정은 여러 다른 종류의 제물을 말하고 있다(레위기 1-7장을 보라). 이것들 가운데

세가지만 살펴보자. 번제는 특정 동물을 불로 태우는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망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가 있다(레위기 1장).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땅의 수확물로 드렸다(레위기 2장).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해졌다(레 4장). 의도적인 죄를 덮을 제물은 없다. 이런 경우에 죄를 지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던져야 했다. 가인과 아벨은 구약을 통해서 행해진 방식의 예배를 시작한 것이었다.

본문 적용

이 이야기를 당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 ⌚ 다른 가정들처럼 당신의 가정에도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정하라
- ⌚ 당신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라
- ⌚ 높은 수준의 긴장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관계를 구분하라
- ⌚ 그런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라
- ⌚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라

[제 3 과]	은혜를 찾아서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창세기 6:5-9; 7:1-6; 8:13-2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창세기 6:5—9:17</p>	<p>학습주제 사람들의 사악함에 심판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p> <p>탐구질문 왜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p> <p>학습목표 노아에게 자신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진술하고 인간의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을 관찰하는 방법들을 확인하도록 인도하는데 있다.</p>

들어가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부르시고, 나누시고, 또 인도하시는 등의 은혜를 표현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심판에 균형을 맞추셨다.

인과의 법칙은 인생의 기본 원리이다. 할리우드 극작가들과 소설가들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 주제를 반영해왔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에코 효과(산울림 효과)라고도 한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원리를 간단한 말로 표현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의 보편 원리를 보다 더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시 7:15).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에게 정확하게 일어났던 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셨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특권을 누렸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들의 특권에 상응하는 책임을 주셨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들만의 특별한 위치를 누릴 수 있었다.

최초의 인간은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다. 불순종의 행위는 그들 - 그리고 우리들 -을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는 갖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저주를 받게 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대홍수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었다.

홍수의 원인 (6:5-9; 7:1-6)

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셨는가? 주일 학교에서 한 꼬마가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것은 “왜냐하면 깨끗해져야 할 더러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설명했다. 그 어린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다.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불순종한 이후로 인간의 사악함이 그 광포 속으로 모든 인간을 빨아들일 것처럼 보일 때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 기자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이라고 결론지었다(창 6:5). 강렬하고 명료하게, 이 단어들은 우주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문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죄는 세상과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수많은 더러운 사람들을 빨아들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홍수를 약간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사악함은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성경은 6절에서 그리고 7절에서도 같은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땅 위에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본문은 하나님이 동요하셨거나, 혹은 인간에 대한 마음을 바꾸셨다고는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단순히 한숨을 쉬셨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죄는 인간과 다른 인간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는 인간을 흠쳐갔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한 가장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 죄로

인한 최악의 결과는, 우리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이다. 성경은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한다(창 6:6).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혐오로 인해서도 홍수를 내리셨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어두운 구름이 덮고 있던 세상에 한줄기 빛이 비추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8). 다음에 이어질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노아는 믿음이라는 유일한 특성을 반영하였다.

무엇보다도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에게 영감을 주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하여 성경 저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라고 묘사했다(히 11:7). 노아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신뢰했다. 히브리서 11:1절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인 것이다.

노아의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노아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고 확인해준다(창 6:22). 노아의 믿음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였다.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했다. 또한 그는 동시대의 사람들로 부터 조롱을 받았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했다.

더욱이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했다. 창세기 5:32절과 창세기 7:11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기로 계획하신 것은 노아가 500살 때였고, 홍수를 내린 것은 그가 600살 때였다. 그림을 그려보자. 노아는 배를 만들고 나서 기다렸다. 10년 또 10년, 노아는 기다렸다. 하늘을 가리는 구름 한 점 없었다. 땅 위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노아는 여전히 기다렸다. 마침내 이 모든 세월 뒤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7:1). 그러고도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7:10). 그러나 노아는 여전히 기다렸다, 왜냐하면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았다.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러나 홍수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왜냐하면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양식을 따라서 방주를 지었다. 그러고 나서 적절한 때에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갔다. 왜 노아는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을 데리고 갔는데 반해, 부정한 짐승은 두 쌍만을 데리고 갔을까?(7:2-4절을 보라).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머무는 동안 “정결한” 고기들만을 먹어서 그러한 짐승들이 더 필요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면 노아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로 “정결한” 짐승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노아는 부정한 짐승보다는 정결한 짐승이 더 많이 필요했다. 노아, 그의 가족, 그리고 짐승들은 안전하게 방주에 머물렀는데, 성경은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고 말한다(7:12). 오직 방주에 탄 그들만 살아남았다.

홍수의 결과 (8:13-22)

결과적으로 홍수는 가라앉았고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던 곳에서 내리기에 충분할 정도로 땅은 말랐다. 자기의 가족과 함께 동물들을 방주에 모아 들인 후로 1년 10일이 지나고 나서야 노아는 그들을 방주에서 인도하여 내었다(7:11과 8:14절을 비교해보라). 그들 위로 펼쳐진 맑은 하늘과 발 아래의 굳은 땅과 함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기뻐하였다. 방주 안에 갇혀 있던 불확실한 세월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실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실재를 잠식해버렸다(8:14-16).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아담과 이브에게 그랬던 것을 반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도전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9:1). 다시 한 번 더 가능성이 인간의 삶에 주어졌다. 하나님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처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많은 경우에서도 그러실 것처럼,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9:1).

노아와의 새로운 시작과 원래 창조 사이의 유사함에 주목하라(창 1-2장).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동일한 출발, 동일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동일한 초점을 보게 된다(1:17과 9:6절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이 본문을 아브라함과 연결하여 주목하라(12:1-3). 우리는 하나님에 의한 비슷한 축복과 많은 후손들과 관련된 비슷한 도전을 보게 된다. 이것은 노아의 인생에서 숭고한 영적 순간이었고, 그래서 노아는 아브라함도 나중에 그렇게 하듯이(12:7),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다(8:20-21).

홍수 이후의 모습들

홍수 이야기는 우리의 유약함과 믿음을 기억하는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인간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홍수는 우리가 최악에 처해있는 인간성을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은 홍수가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수는 또한 가장 좋은 상태에

처해있는 인간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노아가 견줄 수 없는 수준의 믿음, 즉 행동을 바꾸어 위대함을 일으키는 종류의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저급한 인간성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상하게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다.

홍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심판과 은혜를 기억하는데 있어서 규칙적으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교차하게 되면 언제나 심판이 따라온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의지와 인류와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램은,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한다.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다(9:13). 십자가가 갈보리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상징이 될 것이었다(롬 5:8).

적용 및 실천

홍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기억하게 한다. 먼저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군중들과 반대로 가야만 하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우리가 의견 일치에 너무나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면, 다수가 항상 옳다고 믿기 쉬울 것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러한 가정에 반증을 주는 유일한 이야기이다.

본문의 이야기는 또한 구약의 하나님을 단지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단정하는 반면에 신약의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는 일반적인 형태를 버리게 한다.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인간의 사악함이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훼방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랑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악함보다 훨씬 강력하다.

질문

1. 당신의 삶이나 혹은 아는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인과의 법칙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때를 생각해볼 수 있는가?
2. 방주를 짓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당시의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가?

3. 노아가 가진 믿음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감명을 주는가?
4. 오늘날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5. 당신이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특별한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는가?

[참고]

군중과 반대하여 홀로서기

초기 종교 자유에 대한 침례교도 제안자인 로저 윌리엄스(1603-1683)는 시민의 권리가 종교 문제에서의 양심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믿었다. 이러한 자세는 그가 살던 시대에서는 이교도적인 것이었고, 그에게 끊임없는 반대를 야기시켰다.

윌리엄스는 박해를 피해 영국을 떠났다. 그러나 1631년 보스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 다시 종교 박해의 한복판에 갇히게 되었다. 그는 미국의 청교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청교도들을 위해서만 종교의 자유를 원한다는 알게 되었다. “위험한 의견”을 퍼뜨린다는 죄목으로 메사추세츠만 거류지에서 추방당한 로저 윌리엄스는 로드 아일랜드 거류지를 설립했다.

왜 로저 윌리엄스는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제공하는 이러한 행동을 취했을까? 그것은 그가 종교의 자유는 또한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로저 윌리엄스는 이전 시대의 노아처럼 군중들에 반대하여 기꺼이 홀로서기를 하였다.

본문 적용

노아의 경험을 당신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 ①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들을 확인하라
- ① 그러한 불순종의 행위들을 자백하라
- ① 그러한 행동들을 긍정적인 행동들로 바꾸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라
- ① 이러한 전략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을 구하라
- ① 이러한 전략에서 당신을 결길로 빠지게 할 당신 주변의 영향들을 주목하라

단원 2: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2단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의 다섯 과는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써의 이스라엘을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추적해간다.

이 단원에는 아브라함(창세기 12; 15; 17); 사라(창세기 18:21); 야곱(창세기 25; 27; 32; 35); 그리고 요셉(두 과에 걸쳐서 , 창세기 37-50)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포함되어있다.

본 단원의 각 과에 나오는 각각의 성경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의 틀을 형성하는데 의미있는 역할들을 감당했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 그리고 특별히 언약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 삶의 변화를 기꺼이 과감하게 받아들였음으로 성경 전반에 걸쳐 존경받는 인물이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5과는 그녀의 믿음에 관한 유쾌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록 그녀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믿기 주저했지만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우유부단한 것은 아니었다.

믿음의 모범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으며(창세기 17:17) 또한 하나님께 다른 상속자를 인정해 달라고 설득하기도 했다(17:18).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 6과는 아무도 야곱을 지명하지 않았을 특별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로서의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복을 받기 이전이나 이후에 그 자신이 완벽한 존재라거나 또는 받을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속임수를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그것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7과와 8과는 성경을 통틀어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중의 하나인 요셉에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는 유혹에도 불구하고 지킨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통찰력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위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다.

2단원: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

4과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창세기 11:31-12:7; 15: 1-6; 17:1-8
5과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다	창세기 18:1-15; 21:1-7
6과	야곱: 속임수와 축복	창세기 24:62-67; 25:19-21; 26:12-33
7과	요셉: 유혹을 받았으나 신실했던 사람	창세기 39
8과	요셉: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함	창세기 45:1-15; 50:19-21, 24

[제 4 과]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창세기 11:31-12:7; 15:1-6; 17:1-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창세기 11:27-25:11</p>	<p>학습주제 계속되는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삶-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다.</p> <p>탐구질문 인간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믿음의 역할을 요약해 보고 나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지탱해 나가게 해주신 예들을 깊이 생각해본다.</p>

들어가기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일들을 하라고 하셨고 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을 하셨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믿었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았다.

데라의 아들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까지 아브람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하도록 명하셨고 그가 순종하면 위대한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믿음은 그의 삶에 방향성과 자양분을 제공해 주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성취를 향해 그를 이끌어갔다.

아브람의 이야기와 함께 창세기의 내용은 그 강조하는 바가 달라진다. 처음의 11장까지에서 우리는 창조자로서 묘사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전 인류의 관계의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초점은 아브람에 관한 소개로 상당히 좁혀진다. 창세기의 방향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한 사람에게로 향한다. 온 세상을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한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람의 믿음(11:31-12:7)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람은 하란에 있었다. 하란은 그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아브람의 형제(하란이라고 불렀던)가 몇 년 전에 죽었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왔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여행을 시작했지만 하란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실 때 하란을 “너의 본토”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런 소유격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우리는 하란이 아브람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 곳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은 바로 이곳에서 부터였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어디로 가야할지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네게 보여줄(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람에게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집을 떠나서 멈춰야 될 장소에 이르기까지 계속 나아가라고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무 이유없이 그의 아끼는 집을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만약 그가 충성되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어려운 요구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하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는 몇 가지 복들이 포함되어 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아브람에게 복을 주셨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아브람을 상상해 본다면 아마 우리는 그가 입을 딱 벌리고 “정말입니까?”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음을 보았다. 불임이라는 것은 아브람 당시의 가정들에게는 가망없는 질병이었다. 자녀가 없는 부부의 가족 유산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므로 그들의 죽음과 함께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불임 여성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여성은 어머니라는 직분외에는 다른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노후에 그들을 돌봐 줄

사람이 없었다. 큰 나라를 이루고 명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를 갖는 것이었는데 아브람의 자녀에 대한 소망은 이미 끊어진지 오래였다. 의심의 여지없이 아브람은 이 표면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실지 궁금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찌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 구절은 히브리어에서는 미래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이 구절은 “복의 근원이 되라” 와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는 명령형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명령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람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3) 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특별히 보호하실 것이었다. 세상의 눈에 합당한 정의로 아브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 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실제로 지속적으로 임재(내재)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따라서 아브람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셨다.

앞의 절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람에게 임한 복이 지구상 모든 민족에게로 확대될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끝난다. 하나님과 아브람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부터 그분은 온 인류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맺는데 들어오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람이 알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준행했다. 그의 아내는 불임이었지만 큰 나라를 이루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분명히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믿음 또한 가지고 있었다.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에 속한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대로 그가 멈춰야 할 곳을 알게 하셨다.

뿐만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바로 그 땅을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비록 아브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자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해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단지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단을 쌓은 것을 통해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아브람의 의심과 하나님의 확증(15:1-6)

세겜을 떠난 이후 아브람은 유목민의 삶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기근이 있었을 때 그는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다. 결국 사래를 자신의 누이로 속인 거짓말 때문에 이집트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는 이집트인들이 사래가 그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자신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12:10-20)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이집트를 떠난 이후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은 그들 사이의 여러 가지 다른 점 때문에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13:1-18)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롯이 살았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기로 결정한 이웃 왕들에게서 롯을 구출하도록 도우셨다.(14:1-24)

그 다음에 아브람은 창세기 15장에 묘사된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방문을 받는다. 전 장에 나오는 아브람의 군사적 승리로 하나님은 아브람에 대한 보호, 언약, 그리고 상급을 확증하셨다(15:1).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약속(12:2-3)을 생각해 보면 아브람이 기대했던 것은 자녀와 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과 사래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다. 따라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고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상속자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제안함으로 자기 손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했다.(15:2-3)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맨 처음 약속을 확인해주시는 것으로 아브람의 의심에 응답하셨다. 아브람과 사래는 확실히 그들의 피와 살을 물려받은 아들을 낳을 것이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자손이 결국에는 얼마나 많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셨다.(15:4-5) 그 시점에서 아브람은 분명히 마침내 한 아들을 위해서 정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번영과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

비록 아브람이 의심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의 믿음으로 인해 의인으로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브람은 법을 잘 지켰다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다.

언약의 성립과 개명(17:1-8)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심을 극복한 이후 하나님은 그가 유목민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이 그의 자손들의 소유가 될 것임을 재확인해 주셨다. 그 때 아브람은 사래의 몸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다. 아브람과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람이 86세였을 때 출생했다.(16:1-16)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아브람에게 나타나신 때는 이스마엘의 출생으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였다.(17:1) 아브람은 99세였다. 이 전에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을 받기위해 단지 하란을 떠날것만을 명하셨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삶의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셨다. 아브람은 매일의 삶을 그가 하란을 떠나던 날 처럼 살것을 요구 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의 언약을 세 번째로 확증 하셨다.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17장 9-16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명하셨다. 또한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다. 이러한 증표들을 받은 후에도 아브람은 또 다시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와 그의 아내 사라가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비웃었다.

아브람은 심지어 이스마엘이 약속의 성취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간청하기도 했다.(17:17-18)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꾸짖기는 하셨지만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 하셨다.

아브라함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는 그와 그의 가정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이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귀하고 귀한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름으로 그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입증해 보였다. 그는 심지어 제단 위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극적인 순간 한 천사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삭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수양을 가리킴으로 이삭을 구해주었다.

적용 및 실천

아브라함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도록 명하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언약으로 받았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다.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모범이 되었다.

믿음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의심하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사회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의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심은 탈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였고 그것은 언제나 그를 지탱해 주었다. 심지어 의심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결국은 믿음과 신실한 삶에 이르는 길을 발견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을 갖는 것보다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 처럼 보이는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찾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 의심이 표면화되고 힘든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믿음 언제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질문

1. 성경의 다른 책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다음의 참고 성구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마태복음 1:1; 누가복음 1:46-55; 로마서4; 갈라디아서 3; 히브리서 11:8-10)
2. 하나님은 오늘날의 성도들과 어떤 약속들을 맺으셨는가?
3.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은 이루어질 것인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4. 의심 하는 것과 질문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어떻게 의심이 믿음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당신은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께 질문하는가?
6. 의심이 들 때 어떻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지탱해 주었는가?

[참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번 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졌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후에 아브라함으로 불려지는 아브람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17장에서 언약을 재확인 받기까지 이번 과의 주인공은 아브람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성경에서 개명이라는 것은 종종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가 “열국의 아버지”(창세기 17:5)가 될 것을 나타내주셨다. 하나님은 언약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다. 열방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었다. 이 위대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라들이 발전하게 되며 열왕이 일어나며 땅이 주어지게 될 것이었다. (17:6-8)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알 기회를 얻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두 가지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예제도와 성경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조카, 그들의 소유들, 그리고 “얼은 사람들”(창세기 12:5)을 이끌고 가나안땅을 향해 출발했다. 과거에 성경은 노예제도를 옹호하기 위해 사용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본문과 같은 구절들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도 노예를 소유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신은 노예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본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노예제도와 관련하여 거론될 수 있는 다른 성경구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p>[제 5 과]</p>	<p>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다</p>
<p>핵심본문 창세기 18:1-15; 21:1-7</p> <p>배경 창세기18:1-15; 21:1-7</p>	<p>학습주제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을지 아니면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신뢰할지를 선택하라고 한다.</p> <p>탐구질문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을까?</p> <p>학습목표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던 때와 그 약속을 신뢰했던 때를 기억해 본다.</p>

들어가기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약속을 하셨을 때 웃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공급하심으로 인해 또 다시 기쁨으로 웃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세 살짜리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있었다. 그 때 그 애가 매우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다. “엄마, 하늘에 말이 있어요!”

하늘에 말이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애야, 말은 하늘에 살지 않아. 그건 아마 커다란 새 일꺼야.” 그러나 딸 애는 하늘에 말이 있다고 계속 우겼다. 마침내 신호등의 빨간 불로차가 멈췄을 때 나는 고개를 돌려서 그 애가 가리키는 하늘 그 지점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구름이 정확히 말의 형태를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또 다시 웃었다. 이 웃음은 내 믿음의 부족함을 인한 것이었다. 세 살짜리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 말도 안되는 소리처럼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사라도 진실에 관한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터무니없이 들리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웃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을 때 그녀는 그 자신의 믿지 못함과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또 다시 웃었다.

급히 달려나가 환대함(18:1-8)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날은 평상시처럼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마 아브라함은 오전 내내 일하고 더위가 절정에 달했을 때 낮잠을 자기로 했었을 것이다. 때는 하루 중 낮잠 자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 이었다. 그러나 이 날 그리고 이 낮잠은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이 날 낮 잠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처음의 두 절은 이해하기에 약간 혼동을 일으킨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는가? 아니면 세 사람이 나타났는가? 이 두 견해는 어쩌면 모두 맞는 것이다. 1절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 아브라함은 맞은편에 서 있는 세 사람을 보았다(아마 정신을 차리고 보았다는 의미 인지도 모른다)고 묘사하고 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께서 사자(전령, messenger)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때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로 사람으로 또는 환상이나 꿈에 나타났다.

본문에서 주님은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사람에 관한 설명에서 이들의 숫자는 세명, 한 명 그리고 주님으로 바뀌고 있음을 눈여겨 보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설명들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세 명이 그를 방문하기 위해 왔다.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세 명을 대표해서 말했고 그 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또는 한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즉시 그들이 주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이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은 세 명의 방문객들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환대했다. 그는 친척들이 방문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 나갔다.(창세기 29: 13; 33:4)
아브라함은 마치 왕족이나 존경받을만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그 사람들을 친척이나 왕족을 대하듯이 함으로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을 정성을 다한 예우를 보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중동지방의 손님접대 관습대로 그들을 대접했다. 몇 년동안 자기 가족 외에는 아무도 못 만날지도 모르는 유목민 사회에서 방문객들과 여행자들과 나그네를 어떻게 접대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만약 그가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이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게하고 먹을 것을 가져오게 허락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자신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해서 그들이 화가 나있다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마실 것과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더위에 지치고 피곤한 여행자들에게 원기를 북돋아주는 전형적이고 특별한 방법 이었다.

아브라함은 약간의 “먹을 것”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객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 장막으로 달려갔다. 그는 사라를 재촉해서 밀가루 세 스아(seahs)로 빵을 만들도록 했다(18:6) 한 스아는 2 갤런에 해당하는데 세 스아의 빵은 세 사람이 먹고도 남는 양이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송아지중 하나를 택해서 종에게 요리를 하도록 했다(18:7). 빵과 고기가 커드(curds 우유를 응고해서 만든 식품, 요거트와 같이 보통 고기와 함께 먹는)와 함께 차려졌을 때 손님들이 그 진수성찬을 즐기는 동안 아브라함은 함께 먹지 않고 그저 가까이에서 모셔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방문객들에게 할 수 있는 극진한 대접을 했다. 어쩌면 세 사람을 최고로 대접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제물을 주님께 바친 것인지도 모른다.

사라를 위한 말씀(18:9-15)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매우 서둘렀던 것 같다. 그 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에야 그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고 진중했던 것 같다. 사라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장막안에 머물러 있었다. 결혼한 여자로서 방문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적합한 처사였다.

방문객들은 아브라함에게 “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고 물었다. 아브라함은 그녀가 장막에 있다고 대답했다(18:9). 그것은 이상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내의 이름을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또한 음식을 준비하는 장소가 장막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질문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는 방문객들과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인해 그 방문객들의 정체가 약간이나마 밝혀졌다. 그들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므로 아브라함과 사라(장막에서 벗돌고 있었던) 는 그 방문객들이 보통의 여행자들과

다르다는 것에 놀랐음이 틀림없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장막에 있다고 말한 후 방문객들과 그만 있는 장소에서 주님은 사자들을 통해 내년 같은 시기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8:10).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많았다(18:11). 사라는 가임기가 지난 지 이미 오래였다. 우리가 앞에서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이 많고 불임이었던 사라는 갱년기 또한 한참 전에 지났다. 여기서 또 다시 우리는 순전히 비논리적이고 정말 터무니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불임을 치료하시겠다고 약속 하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갱년기가 지난 불임 여성에게 아이를 약속하신 것이었다! 사라가 웃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다.(사라의 웃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사라 혼자만 웃은 것이 아니었다.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은 약속을 하셨을 때, 그 역시 웃었다(17:17). 평생을 자녀 없이 지내 온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 없는 생각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비웃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이름은 “ 그가 웃었다”(17:19)라는 의미인 이삭이 될 것이라고 말씀 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사라가 웃음으로 이름은 그의 어머니의 웃음과도 관련이 있게 되었다.

사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비논리적인 약속에 대해 웃었을 때 그녀는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고 생각했다(18:12). 이런 사라의 생각에서 우리는 그녀의 웃음이 단지 비논리적인 성격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웃음을 통해 나타난 그녀의 불신은 감정적인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녀가 없다는 절망과 슬픔 속에 살아왔다. 그녀의 미묘하고 소박한(천박한?) 웃음은 정말로 이 모든 슬픔이 지난 후, 이제 이 늙은 나이에 마침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마치 묻는 것 같았다.

비록 사라의 방문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고 그녀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18:13)고 물으셨다. 주님은 사라의 생각을 알고 계셨고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아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사라가 다음해 정해진 시기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셨다(18:14). 아브라함과 사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직접 그녀에게 말씀 하셨다.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깨달았을 때 사라의 자신이 했던 행동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해보려 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자신의 이름을 방문객(주님을 대표하는)들이 알고 있고 들리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그녀의 웃음과 생각을 꿰뚫고 있음을 알았을 때 조차 그녀가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누가봐도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은 분명히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실제로 그녀는 숨길 수 없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

성취(21:1-7)

하나님께서서는 그가 하리라고 약속하신 일을 하셨다. 사라는 임신을 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시기에 출산을 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다. 사람의 웃음, 처음에 불신의 의미였던 그 웃음이 이제는 기쁨의 웃음이 되었다.

오늘날의 여성들은 직업과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다양한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 그러나 사라가 살던 시대의 여성들에게는 극소수의 선택권만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되는 것만이 사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이었고 그것은 만족스런 삶을 살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기도 했다. 사라의 삶은 목적이 없었고 자녀가 없으므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노년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기쁨의 보따리인 -한 아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절망을 행복으로 바꿔 주심으로 그녀의 존재를 획기적으로 바꿔주셨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불신 때문에 웃었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의 불신이 약속의 성취-그들의 아들 이삭(“그가 웃었다”)-로 극복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웃었다.

적용 및 실천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마태복음 19:23-25)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마태복음 19:26) 고 대답하셨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질문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정답이 “아니요”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신약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다.

믿음은 “하늘에 있는 의 말“ 처럼 비 이성적인 것을 믿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에 웃게 된다. 그러나 사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불신의 웃음조차도 환희의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좀 더 빨리 환희의 웃음을 웃는 것이다.

질문

1. 성경의 다른 책들은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사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참고 성구들: 로마서 4:19; 9:9; 히브리서 11:11; 베드로 전서 3:6)
2.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 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그랬는가?
3.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4.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기쁨으로 웃게 하셨는가?

[참고]

사래에서 사라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후(창 17:5),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 주셨다(17:15).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외에는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신데 대한 별다른 설명은 없다. 사래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그녀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었다. 비록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사래와 사라는 모두 공주를 뜻하는 이름이다. 이름 그 자체 보다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 주신것은 약속과 변화를 상징한다. 사래는 불임과 슬픔 속에 살았다. 그러나 사래는 성취된 약속 가운데서 웃음 가득 찬 행복한 어머니로 살게 되었다.

사라에게서 배우는 교훈들

1.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기
2. 거짓말에 사로 잡히지 않기
3. 불신이라는 실수를 환희와 웃음으로 변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스스로를 몰아가지 말라.

<h2>[제 6 과]</h2>	<h2>속임과 축복</h2>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p> <p style="text-align: center;">창세기 25:21-34; 27:22-36b; 32:22-32; 35:9-1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p> <p style="text-align: center;">창세기 25:19-34; 27:1-33:20; 35:1-29</p>	<p>학습주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신다.</p> <p>탐구질문 당신이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성취하도록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p> <p>학습목표 가족을 포함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 보다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방법들을 확인하도록 한다.</p>

들어가기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선택하셔서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사용하셨다.

대부분의 사람이, 최소한 많은 사람들은 You've just won one million dollars! (당신은 지금 막 10억에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적힌 메일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보통 그것을 열어보지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다. 나는 내가 실제로 10억을 받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며 그 메일을 보낸 회사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팔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버린 봉투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다. 만일 내가 정말로 10억에 당첨되었다면? 만일 내가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서 당첨된 10억을 잃어버렸다면? 왜 나는 그 메일을 믿지 않았고 열어보지도 않았을까?

내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 메일들과는 달리 야곱은 축복을 받을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약속을 받았고 그러한 결실을 받았다.

두 나라의 탄생 (25:21-34)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아들이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성취하실 것이다. 모친이 죽은 후 바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 출신이므로 인정받을만한 혈통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이삭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되물려 줄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다. 하지만 5과에서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삭은 리브가의 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보다 더욱 강한 의미이다. 그 단어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의미를 전달하며 종종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꾸어 달라고 간청할 때 쓰는 단어이다. 이삭은 그의 나이 40세때부터 아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20년을 간청했다 (창 25:20, 26). 이삭의 호소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창 25:21).

오늘날 우리는 소노그램(sonogram)을 통해서 쌍둥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의 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복중에서 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있었던 성경 기자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심하게 걱정했고, 아마도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도대체 그의 복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호와께 물었다 (25:22).

주님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것을 드러내셨다. 표면적으로 그것은 그녀의 복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는 주목해야 할 것이 더 있었다. 그것은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들의 일생동안 서로 다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두 개의 서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욱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25:23).

동생이 형을 지배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힘의 역전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형은 힘과, 유산과, 축복을 받았다. 리브가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간직했고 쌍둥이가 자랄 때 계속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을 것이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형은 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라고 불렀다. 동생은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불렀다. 그 의미는 발목을 잡다, 혹은 속이다는 뜻이다. 비록 갈등이 그들이 태중에 있었을 때부터 둘러싸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의 탄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혁명적인 준비라는 사실을 놓칠 수 없다. 그들의 탄생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었고 인간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가는 것이었다.

두 형제 사이의 중동적인 거래 (25:27-34)

그 소년들의 삶은 예언 되었었던 다툼을 반영하면서 시작되고 있었다. 성장하면서, 그들은 서로 다른 성향으로 발전되었다. 에서는 사냥하는 것과 바깥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야곱은 집에서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맏아들이 사냥에서 잡은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다. 비록 본문이 그녀가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야곱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

하루는 야곱이 집에서 요리를 했고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었다 (25:29). 나는 에서가 장막에 급하게 들어와서 야곱에게 그가 요리한 붉은 팔 죽을 요구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25:30). 야곱은 즉시로 에서의 요구에 반응했다, “먼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25:31).

에서는 그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고통스럽게 말했다 (25:32). 에서가 그 거래에 맹세를 한 뒤 (25:33),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팔죽을 주었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 떠났다 (25:34a). 그가 말도 없이 떠났다는 것은 그가 성급하게 거래를 했다는 위험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아마도 그는 일어난 일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에서는 중대한 어떤 것을 가볍게 여겼었다 (25:34b). 비록 그 이야기가 에서의 도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맺고 있지만 야곱의 기만술 역시 책망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축복을 빼앗음 (27:22-36b)

시간이 꽤 흐르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에서에게 사냥으로 잡은 짐승을 맛있게 요리를 해 와서 그가 죽기 전에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엿들었고,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그에게 대신 축복을 하도록 음모를 꾸몄다. 그녀는 이삭이 늘 좋아했던 어린 두 염소를 요리했다. 그녀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서 에서에게 나는 냄새가 나도록 했다. 그녀는 심지어 염소 털을 야곱의 목과 팔에 둘러서 그가 에서와 같은 털처럼

느끼게 했다 (27:1-17).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갔을 때 이삭은 이 아들이 정말 에서인지 약간 의심을 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였지만 이삭은 야곱의 손에 있는 털이 많은 염소 가죽 때문에 에서라고 여기도록 속았다 (27:22-24). 이삭이 음식과 포도주를 어느 정도 먹은 후 야곱은 이삭에게 입을 맞추었다. 야곱이 입은 에서의 옷에서 나는 냄새는 이삭이 이 아들이 에서라고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27:25-27).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내릴 축복을 야곱에게 내렸다. 이삭의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야곱이 떠나자마자, 축복을 기대하며 에서가 도착했다. 이삭과 에서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둘은 모두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 이삭은 “심히 떨어졌다”(27:33). 에서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의 아버지에게 자기도 축복해달라고 애걸했다 (27:34). 이삭과 에서의 감정이 이 구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노가 그들 가운데 들끓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의 속이는 버릇을 책망했고 (27:35) 에서가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이름 붙인 것이 괜히 한 것이 아니라고 동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7:36). 비록 에서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진 축복을 해달라고 애걸했지만 이삭은 때가 되면 에서의 목에서 그 형제의 멍에를 던져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축복이상의 것 외에는 할 수 없었다. (27:37-40).

우리는 이삭이 왜 그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물리고 그것을 에서에게 다시 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축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었다. 축복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이 아니었다. 축복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말이었다. 입에서 한 번 나온 축복은 다시 물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축복을 흠침으로써 야곱의 운명을 흠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리브라에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 즉 야곱이 때가 되면 에서를 다스리게 될 것을 배웠다. 야곱과 리브라의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은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운명을 성취하게 되었다.

천사와의 씨름, 환도뼈 부상, 그리고 이스라엘 (32:22-32)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리브라는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가라고 말했다. 거기에서 그는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일했다. 하지만 이 속이는 자가 이번에는 라반에게 오히려 속았다. 한 아내를 위해서 7년을 일하려고 했던 것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계속해서 일해야 했다. 그의 아내들과 결혼한 뒤 야곱은 몇 년을 라반의 집에서 더 일했다. 그는 결국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에서를 만났고 또 다시 생명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죽땀을 먼저 그 앞에 보낼 계획을 짰다 (27:41-32:21).

야곱은 그 선물들을 앞서 보낸 후 뒤로 처졌다 (32:22-23). 창세기 32:24-25절에서 야곱과

아침까지 씨름을 한 “어떤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상하게 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야곱에게 자신을 놓아달라고 요구했다. 야곱은 복을 주기를 요청했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다. 그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다’는 것이다 (32:26-28). 그래서 야곱은 또 다른 축복을 받았다!

야곱과 그 “사람”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끝난 후 야곱은 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보았다고 언급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또 다시 축복하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

야곱/이스라엘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35:9-12)

에서와 화해한 후 (33:1-20), 야곱과 그의 가족은 결국 베델에 머물렀다 (35:1). 거기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올 때 주님의 환상을 받았던 곳이다 (28:10-22). 야곱은 그의 가족들 안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제거했고 그의 새로운 가정에 주님을 위한 제단을 세웠다 (35:2-7).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고 씨름하는 천사의 축복을 확인시켜 주셨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야곱이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알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속이는 자이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었다는 사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적용 및 실천

처음부터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 하고, 기만을 잘 했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다. 야곱이 결점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우리는 모두 야곱처럼 엉망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쨌든 축복하기로 작정하신다. 예수님에 의해 주어지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똑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하나의 인간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복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복과 함께 오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들을 저지른다. 하지만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도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질문

1. 야곱은 나머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야곱에 대한 다른 곳의 설명들은 말 1:2; 눅 1:33; 롬 9:10-13; 그리고 히 11:9, 20-21절을 보라).
2. 야곱은 장자권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언하셨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곤 했었다. 만일 우리의 목적이 존경받을 만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결과가 방법들을 정당화 시켜줄 수 있는가?
3.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그러한 느낌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참고]

왜 야곱인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인 야곱을 선택하시어서 복을 주신 것은 야곱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약속의 상속자가 되도록 결정하셨다. 비록 에서는 그의 장자권을 중히 여기지 않는 성급한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자기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 속일 수 있는 사기꾼이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약속과 복을 받았다. 사기꾼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지위와 위배되는 것이었다. 동생을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과부, 고아,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셨다. 우리는 마태복음 20:16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상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마도 야곱은 그러한 원리들의 한 예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도 쉽게 속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선택하시고 싶은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우리의 제한된 생각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에서 / 에돔

에서의 이름은 문자적으로 털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에서는 때론 에돔이라고도 불리는 데, 붉다는 뜻이다. 그는 에돔이라고 불리는 부족의 족장이 되었다. 창 25:25절은 에서가 태어났을 때 붉다는 것을 가리킨다. 에서는 아마도 그가 태어났을 때 붉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색깔이 붉거나 혈색이 붉었기 때문에 에돔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근접한 곳에 살았다. 한때는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경멸했다. 하지만 종종 에돔 족속에 대한 관대한 대우가 구약 성경 속에서 발견된다.

<p>[제 7 과]</p>	<p>유혹이 왔지만 물리침</p>
<p>핵심본문 창세기 39</p> <p>배경 창세기 37; 39-41</p>	<p>학습주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한다.</p> <p>탐구질문 옳지 못한 일이 너무 쉽게 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 때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옳은 것을 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배운 진리를 내가 유혹을 당할 때 적용시킬 줄 안다.</p>

들어가기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헌신을 통해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모든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매일 유혹을 접한다는 것이다.

유혹의 심각성과 종류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모든 유혹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옳은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한 것들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잊게 한다. 한번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나중에는 더 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한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있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매일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에 대한 훌륭한 본을 보여준다.

유혹의 장소 (39:1-6)

요셉의 인생은 분명히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그의 인생 초반부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로써 살았었다, 하지만 그의 교만한 태도와 행동들은 다른 열 명의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동시에 받게 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감정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제거하려는 음모까지 일게 되었다.

37장에서처럼 그 기회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러 갔었던 날에 찾아왔다. 그들은 그를 붙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고, 그를 죽일 계획을 짰다. 그들은 후에 죽이지는 않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고 그들의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말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았을 때 이 계획을 진행시켰다. 이집트에 도착한 이스마엘족은 요셉을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다.

요셉은 그의 미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음에 틀림없다. 그의 형제들은 거의 확실하게 그들이 요셉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2절은 요셉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작정을 하셨다. 비록 요셉이 노예로 일하면서 현명하고 성공적이었지만, 그리고 보디발의 집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지만 성경은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힌다. 6개 구절에서 “여호와” 라는 단어가 다섯 번이나 쓰임으로서 이 점을 강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났다는지, 혹은 직접 말씀하셨다고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요셉의 성공은 보디발이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감독하도록 맡김으로서 더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 지위는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직접 띄게 만들었다. 요셉의 일은 분명 보디발의 아내가 혼자 있을 때도 일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요셉의 준수함과 보디발 아내의 적극적인 접근은 간통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노출 시킬 수 있다. 우리 각자는 삶의 영역에서 유혹이 강력한 곳이 어디인지 각각 잘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들을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알콜 중독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이 술집에 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거기에 가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유혹 (39:7, 10)

보디발의 아내는 곧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다.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보라. 그는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신당했다. 그는 강제로 그의 아버지와 고향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그는 이집트에서 몇 달간, 혹은 수 년간을 노예로서 일한 것 같다. 그는 이제 감독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고 커다란 자유를 부여 받았다. 이러한 모든 고생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도 된다는 생각을 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생을 한 뒤에 보상심리로 이런 실수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개인적인 성공보다 더 큰 유혹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쉽게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의 관계가 아무도 모른 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다른 모든 종들을 감독하는 자리에 있었다. 그는 종종 보디발 아내와 단 둘이서 있을 때도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던 것이다. 유혹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믿음이 들 때 더욱 빠지기 쉬운 것이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요했다. 성경은 그녀의 유혹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되었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유혹은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한꺼번에 공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성적인 유혹은 처음에 우리가 합리화 시키고 어쩔 수 없는 이유들을 생각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작은 유혹들은 우리에게 그다지 해를 끼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으며 살게 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작은 유혹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점차적으로 그 유혹들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유혹을 뿌리침 (39:8-9, 11-12)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본문에 따르면 요셉은 두 가지 이유로 거부할 수 있었다. 첫째로, 그는 항상 보디발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충성을 다했다. 그는 보디발이 그러한 커다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자신을 세운 것에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러한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둘째로, 요셉은 자신이 유혹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창세기는 이 구절 전까지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고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보디발의 신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도 기억하고 있었다.

수년 전에 유쓰 그룹과 교회들이 전국에 걸쳐서 WWJD 라는 글씨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는 운동이 있었다. 그 아이디어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하는 것이었다.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분명히 좋은 것이었지만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특히 유혹이 다가올 때이다. 그 흠은 어떤 사람이 유혹을 당할 때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그 유혹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결코 그가 무엇을 해야될 지 결정하기 까지 유혹을 받지 않으셨다. 그는 분명하게 유혹이 일어나서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울타리를 치셨다.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건너오는 것을 거절하셨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고 요셉이 했던 행동이고, 그것이 우리 각자가 유혹을 물리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하게 공격해왔을 때 그 자리를 도망치듯 나왔던 것을 주목하라. 그 유혹과 맞서고 논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순하게 그 자리를 얼른 떠나버렸다. 너무나 많은 신실한 신자들이 자신을 유혹의 한 가운데 놔 둠으로 말미암아 쉽게 죄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종종 그러한 비극은 그들이 그러한 유혹을 맞설 수 있고 직접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약 4:7), 또한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피하라 (도망치라, flee also youthful lusts, KJV, 딤후 2:22) 고 말씀하신다. 창세기 기자는 창세기 39장의 요셉과 38장에 나오는 그의 형제 유다를 극렬하게 비교한다. 유다는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의적으로 그 유혹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요셉은 그것으로부터 달아났다. 유혹을 물리치는 한 가지 증명된 방법은 단순히 그것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이다.

비록 요셉이 옳은 일을 했고 유혹을 물리쳤지만 그 즉각적인 결과는 좋지 못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거절로 말미암아 매우 모욕감을 느껴서 그녀는 요셉이 자기를 덮치려고 했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자기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놓이고 말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는지 의심했었을 수도 있다. 그의 의심들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므로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당신은 이 시점에 놓여 있는 요셉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창 39:21, 23), 그리고 그를 형통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결국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풀려 나오게 된다 (41장). 그 일이 있은 후 요셉은 이집트 정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다. 비록 요셉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유혹을 거절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를 축복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수 백만의 인명들을 돌보셨다.

적용 및 실천

성경은 옛날 책이다, 하지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요셉이 접했던 많은 유혹들을 오늘날 우리도 당한다; 교만, 성적 유혹, 자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유혹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다. 요셉이 교만의 유혹에 빠졌다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접근을 거절했을 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디발 아내의 집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 자기에게 준 신임을 기억했고 그 신임을 이용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믿음의 유산을 기억했다. 그는 그의 육신의 정욕이 그를 죄 짓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요셉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가 요셉이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열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질문

1. 당신은 보통 어떻게 유혹에 대처하는가?
2. 오늘 유혹이 다가올 때 당신은 어떤 단계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3. 만일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면 그 이야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4. 요셉의 반응이 옳았지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느낌을 갖는가? 당신이 경건하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고난이 더욱 심해졌던 경험이 있는가?

[참고]

이스마엘족? 아니면 미디안족?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간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다.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이 무리를 이스마엘 사람으로 진술하지만, 창 37:28과 37:36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이라고 부른다. 분명히 그 용어는 그들의 조상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 “이스마엘 사람”과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었다. 그리고 “미디안”은 그들의 지리적 고향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스마엘과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몇 가지 중요한 관련이 있다. 첫째로,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스마엘/미디안은 아브라함이 이삭 전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이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삭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둘째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수십 년간 머물렀던 곳이 미디안 땅이다. 그는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고 거기에서 40년을 살았다.

본문 적용하기

오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

유혹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이 넘어서지 않아야 할 선을 정하라.

매일 하나님과 다른 신도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라.

유혹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나 장소는 피하라.

유혹이 일어나는 첫 순간에 바로 피하라.

[제 8 과]	요셉: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창세기 39</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창세기 37; 39-41</p>	<p>학습주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은혜로 때론 섭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커다란 목적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p> <p>탐구질문 우리 인생의 여러 상황들과 우리가 취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가?</p> <p>학습목표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며 나의 인생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에 부합되는지 말할 수 있다.</p>

들어가기

비록 요셉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지만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국에 걸쳐서 가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새로운 이름과 신분으로 살아간다. 그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장소로 옮겨져서 살아간다. 그들은 이전 인생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세워나간다.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연방 증인보호 프로그램 (Federal Witness Protection Program)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체험을 매우 중요한 범인을 체포하거나 투옥시키는 일을 돕는 커다란 목적에 희생한 것으로써 간주한다.

요셉의 체험들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해석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선물을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이 거의 없었다. 그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을 받았다. 하지만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과는 달리 요셉은 어떻게 그의 현재 상황이 보다 위대한 목적을 위한 것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그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자신의 위치가 어떤 의미가, 아니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까 의문이 갔을 것이다. 8과의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부터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는 이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기 (45:1-4)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이집트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요셉의 인생 배후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셨다. 요셉의 해몽의 은사는 한 때는 그의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그를 제거하게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요셉은 바로 왕을 섬기던 두 신하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주었다. 이 신하들 중의 한 명은 왕의 술잔을 맡은 자였는데, 바로 왕에게 요셉의 억울함을 이야기 해주로 약속했었다. 그 술잔을 맡은 자는 2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왕은 아무도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 그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의 꿈들은 7년의 풍년 뒤에, 그 풍년을 완전히 삼키고 남은 무서운 7년의 가뭄이 올 것이라고 해몽해 주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가올 기근을 대비할 계획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요셉을 자신의 가장 높은 참모로 세웠고 요셉이 제시한 그 계획을 수행할 책임을 맡겼다.

기근이 닥쳤을 때, 그것은 전역에 걸쳐 일어났는데 가나안도 마찬가지였다. 그 기근은 야곱으로 하여금 식량을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급하게 보내도록 하였다. 그들은 도착해서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진실성을 시험해 볼 수 있었다.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요셉은 그를 도둑으로 꾸미고 위협해서 투옥시켰다. 다른 형제들이 베냐민을 변호 했을 때, 그리고 유다가 자신을 대신해서 가두라고 했을 때, 요셉은 감정이 폭발처

올랐다. 그는 그의 종들을 물리치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신자들이 우리의 신분을 잊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너무나 우리의 성공에 신경을 쓰거나 실패한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하는 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을 진정으로 만족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지 깨닫기 (45:5-8)

요셉이 그의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동안 무엇인가 요셉의 관점에 변화가 있었다. 예전에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던 때를 자랑스럽게 예언했던 그 소년은 이제 그 비전이 성취된 것을 목도한 그 장소에서 자신의 성공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다.

요셉이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지?” 하면서 그의 형제들을 쫓아 버리는 유혹에 빠지기 얼마나 쉬웠겠는가? 하지만 요셉은 인생의 고난 부정적인 체험들 속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요셉이 로봇이나 혹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꼭두각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각 사람에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사람들의 인생에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이루실 그의 목적을 스스로 그려놓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어떤 일이 그 그림에 맞지 않게 일어날 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질문을 던지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애쓰는 것이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지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옳은 자세라는 것을 제시한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치 않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우리가 거부하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 자리,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해야 된다고 교훈한다. 요셉이 이집트에 있지 않았더라면 이집트인들은 기근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고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하기 (45:9-15)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위대한 것들을 약속하셨고 그것은 요셉의 형제들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셔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식량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에서 그의 온 가족들과 식솔들이 살 수 있도록 데리고 오도록 했다. 그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에 온전히 참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요셉이 어렸을 적에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의 형제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게 하였지만 (창 37:5-7), 요셉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가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었음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가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그와 자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너무나 자주 이것을 어떤 특권의 자리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 전에 어떤 인간적인 의무들을 씌워왔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에게 주신 그 초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게 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만이 아닌 것이다.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그 초청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만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오해할 때는 그렇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준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 (50:19-21, 24)

야곱과 그의 나머지 가족은 이집트로 옮겨왔다, 거기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것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에 머물렀고 이집트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누렸다.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재회했다. 후에 야곱은 자신의 축복을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해주는데, 이는 그들의 삼촌들과 동일한 특권을 갖는 것이었고 요셉에게는 가족의 유산을 두 배로 물려받는 결과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야곱이 죽었다. 그의 죽음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커다란 근심을 하게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요셉이 이제 그들을 복수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또한 한번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헌신하면 상황에 상관없이 그 계획에 신실하게 거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했다.

교회에서 수년간 섬기고 나면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는 느낌에 빠지기 쉽다. 우리는 일을 다 끝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혹은 사명을 다 성취했다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축복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수 없이 많은 세대들을 축복하시게 될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이다.

적용 및 실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 생각들, 그리고 느낌들을 기록한 글들을 모아 놓는다. 그러한 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돌아보는 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회고할 때 관계없는 일처럼 보였던 것들도 모두 우리의 삶의 파노라마에 연결이 되어있음을 보게 된다.

요셉의 인생은 바울이 로마서 8:28절에서 기록한 것에 대한 좋은 예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닥쳐오면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슬퍼하지 말자” 라고 말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을 살면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한 하루라는 것을 말이다.

질문

1.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영역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가? 어떤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3.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어떻게 동참시킬 수 있는가?
4. 만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5.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항상 거할 수 있을까?

[참고]

히소스

기원전 18세기 말 기간에 이집트인이 아닌 민족이 이집트를 통치했다. 이 사람들은 히소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인 셈족이었다.

수많은 성경 학자들은 창 42-50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히소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일어났었다고 믿는다. 셈족 계열의 바로가 이집트 계열의 바로보다 요셉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임명했다고 보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이러한 추리를 받아들인다면 요셉을 몰랐던 바로 왕은 히소스 족이 이집트에서 나간 뒤에 온 왕일 것이다.

본문 적용

오늘 본문을 매일의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 * 매일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을 발견하라
- *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라
- *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할 사람 한 두 사람을 정하라
- * 그 초청이 확장될 기회를 구하라
- *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도록 헌신하라